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인터뷰 :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과의 만남



I/D/I/소/식



제9대 어윤덕 원장 취임식

지난 1월 6일 오후 5시, 우리 연구원 제9대 어윤덕 원장 취임식이 ...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Zoom INcheon



인천아트플랫폼, 새로운 문화발신지를 꿈꾸며
인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

도시동향



요코하마시의 새로운 시도 :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共創』 제도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IDI연구



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에 집중 분포하는 근대시기 문화자원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규...

인천지표



지표로 본 인천 공원 녹지 변화
해발 69m의 야산인 응봉산 일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계간 황해문화 전성원 편집장



NEW TALK 사진 · 전성원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계간 황해문화 전성원 편집장

지난 해 TV를 보면서 심심찮게 맞닥뜨렸던 대한항공(KAL)의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광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이민, 유학생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광고가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동안 미국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풍광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던 미국의 작은 소도시들을 찾아 소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광고 덕분에 『오즈의 마법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던 캔자스 주의 와메고(Wamego), 『툼소여의 모험』을 탄생시킨 한니발 같은 미국의 여러 곳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기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곳이 인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인천 시민들이 만들고,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문화재단인 새얼문화재단에서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인천 사람이 아니다. 인천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다시 인천에서 살겠지만 인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 만약 새얼문화재단과 인연이 닿지 않았더라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문화운동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인천이란 도시의 인상은 여느 타지방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96년부터 새얼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는 태생이 인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 좀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인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개항장 제물포, 인천상륙작전, 도크식 항만시설이 전부였다. 다행히 인천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지역운동가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인천 한세기』를 쓰신 신태범 박사님, 『개항과 양관역정』을 펴낸 최성연 선생님 등을 생전에 직접 뵈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엿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인천의 약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었다.

현재 인천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덩달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했지만,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인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개발근대기 동안 많은 수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타지에서 함께 이주한 문화가 본래의 인천문화와 혼종(混種)되면서 새로운 인천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이제 인천에 자리를 잡아 인천 시민이 되었고, 지금의 인천문화는 삶든 죽음 이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천을 문화가 없는 도시라고 폄하하지만 문화란 지역민의 생활, 풍토, 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시간과 함께 쌓여온 것이기에 문화 자체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구 270만의 광역시인 인천에 공통된 지역문화와 단일한 정체성을 기대하는 것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 인천이 가진 풍부한 문화적 유전자를 배제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인천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염려하게 만든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가 완성되면 과거 개발근대 못지않은 제2의 대규모 인구가동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든 그렇지 않은 인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민들이 느끼는 공통된 염원은 한결 같다. 잘 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잘 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잘 살게 되고,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주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잎과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의 힘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의 도시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수많은 문화가 혼종되어 오면서도 현재의 인천을 만들고, 굳건히 지켜온 인천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나는 그 뿌리가 곧 인천의 매력이며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발견할 때 인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리라 여긴다. 인천은 다른 여타 대도시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문화·생태적으로 다양하고 힘이 넘치는 역동성을 지닌 도시다. 인천은 하늘과 바다, 육지로 연결된 인적·물적 소통의 요지로 그 어떤 지역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문화생태계를 아우르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아우성으로 바람 잘날 없는 세계 3대 갯벌과 아름다운 풍광이 돋보이는 연안도시들이 있는가 하면, 근대 개항장과 원 인천의 옛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화수부두, 북성동, 뽕이부리말, 배다리 같은 지역이 있고, 부평, 관교 같은 신도심 지역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터널을 통과하며 인천만의 독특한 문화벨트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한 도시 안에 이처럼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다양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도시는 많지 않다.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든, 근대 이후 개항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든 이제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의 일부가 된 것들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때 인천의 뿌리는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내려질 것이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는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고 했는데, 인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할 때 우리는 진정 인천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에 문화가 없다고 말하는 당신,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지난 해 TV를 보면서 심심찮게 맞닥뜨렸던 대한항공(KAL)의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광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이민, 유학생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광고가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동안 미국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풍광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했던 미국의 작은 소도시들을 찾아 소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광고 덕분에 『오즈의 마법사』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던 캔자스 주의 와메고(Wamego), 『툼 소여의 모험』을 탄생시킨 한니발 같은 미국의 여러 곳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기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곳이 인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 인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문화 만들어야

새로운 도시 인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문화 만들어야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트리에' 42호에서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을 만나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로 각인되기 시작한 인천의 특수성과 자긍심의 초점에 대해 알아보고, 2010년 새로운 도시 인천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

Q 이사장님, 저희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신년호의 뜻깊은 자리를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호의 테마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인천'입니다. 2010년은 '10(열)'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더욱, 개인이든 나랏일이든 무언가 완성해내면서도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는 확연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인천은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 성장하는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어린 이미지를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즈음하여, 인천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오랫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이사장님께 인천이 지나온 모습,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 인천시민의 자긍심의 초점 등을 이사장님의 개인사와 함께 두루 경청해 보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도시란, 바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이며 '문화가 지역의 토양의 뿌리로부터 풍성해지는 도시'

인천이 깊이 성찰해야 되는 문제는, 보여지는 외형만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것이 그 기준이나 유형이 포괄적입니다만, 나는 일터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에는 무엇보다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고, 빌려오는 것이 아닌, 쌓이는 것이므로, 뿌리에 맞는 인천의 정서와 사람에게서 문화를 찾아야 하고, 또 그러한 문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영박물관은 영국의 얼굴인 것과 같이 시장님께 인천의 격에 맞는 시립박물관을 새로 지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50세만 넘으면 노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전 세계가 걱정하고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1억의 이익을 남겨야 할 것을 5천만원만 남기더라도 '사람은 그냥 나뒤편'은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이너스가 되서는 국제 경쟁이 안되겠지만 플러스 한계 내에서는 1억을 벌 것을 5천만원만 벌더라도 직장에 있을 수 있도록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이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전세제가 이 문제를 같이 절감해야 하며, 그런 문제를 젊은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논문을 쓰는 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도시, 공간 정책의 깊이는 성장과 발전 필요

또 인천의 구도심권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더-잘-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재개발인 것입니다. 즉 이전보다 삶의 여건과 조건이 나아지는 것인데, 그 삶의 주체가 살던 사람이 아니고 재개발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야 한다면, 살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살고 있던 터전에서 나가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재개발입니까. 구불구불한 골목도 우리의 정서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떤 건물든지 100년 이상의 건물이고, 한국에 가면 어떤 건물든지 100년 이하의 건물이다’라는 말이 화자될 정도입니다. 이걸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재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달라져야지 모조리 다 개발이라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개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인천 지역의 특수성에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개발해야

그리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시는 그에 맞는 시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변형하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연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령, 중앙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해도 인천의 특수성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일상화 되어 있지만, 상해는 자전거를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릉이 많은 지형 때문입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도시에서 자전거가 그다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더운 기후 때문입니다.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되 문화의 짝은 인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세우고 바깥의 것을 받아들여야 플러스로 작용이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인천의 발전에, 이익에 기여한 것은 바로 ‘인천 시민들’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면서 다이내믹하고 빠른 성장을 하게 되니 이제는 해외의 여기 저기서 전문가, 학자의 자문을 받고 아이디어와 주장 또한 풍성해졌습니다. ‘굴업도’ 아시지요? 그제 전에는 핵폐기장이 될 뻔 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나서서 섬 전체가 핵폐기장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인천대교 주경관폭도 700m로 하기로 했던 것을 800m로 넓히게 만든 것도 시민들입니다. 최근에 ‘배다리’ 재개발을 중단시키고 역사자원을 보전하게 된 것, 이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서 인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유명한 미술관,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터가 근간이 돼서 솟아나와 탄탄하고 특색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천은 ‘포용하는 도시’, ‘해불양수’의 도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불양수’...이 말은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섬진강물도 대동강물도 낙동강물도,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그러나 인천사람들과 충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동안 외지에서 와 인천에 터를 잡고 인천에서 노력하고 아끼고 애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천만의 힘, 인천의 포용력과 잠재성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장, 시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사마천 사기에 병법가인 오기(吳起)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기는 장군이면서도 사병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제 입으로 병졸의 종기가 끓은 자리를 빨아주었다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렇게 오기처럼 주위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치를 편하게, 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불양수’의 마음으로, 감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지역 사람이 개발 후에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이 2010년 경인년에 이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 대담 : 신성희(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뜨리에’ 42호에서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을 만나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로 각인되기 시작한 인천의 특수성과 자긍심의 초점에 대해 알아보고, 2010년 새로운 도시 인천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제9대 어윤덕 원장 이임식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2009년도 종무식



우리 연구원 종무식이 구랍 31일 오후 5시,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먼저 우수직원 표창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기념패 및 기념품 수여가 있었으며 이어서 2009년 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분야별 공로자 포상이 이어졌다. 모든 시상이 끝나고 어윤덕 원장이 한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의미의 송년사를 전하면서 연구원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제9대 어윤덕 원장 이임식



지난 1월 6일 오후 5시, 우리 연구원 제9대 어윤덕 원장 이임식이 있었다. 어 원장은 재직 중에 시책활용성을 증시킨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힘썼으며 정책동향보고서(Issue Paper)를 발간하고 시정 아이디어 개발에도 일조하는 등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바 연구원 임직원들이 준비한 감사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서 어윤덕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재직하는 동안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연구수요 창출을 도모하려는 뜻을 따라주고,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준 연구자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히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더 큰 성장을 기원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진자 임명 및 신설된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도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장 허동훈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조상운

제10대 홍종일 원장 취임



□ 인천발전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안상수/安相洙)는 제10대 원장으로 홍종일(洪鍾逸) 現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선임하였음.

□ 홍종일 신임 원장은 1월 18일(월)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함.

지난 1월 6일 오후 5시, 우리 연구원 제9대 어윤덕 원장 이임식이 있었다. 어 원장은 재직 중에 시책활용성을 증시킨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데 힘썼으며 정책동향보고서(Issue Paper)를 발간하고 시정 아이디어 개발에도 일조하는 등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바 연구원 임직원들이 준비한 감사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증정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이전호 보기

2010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세미나 개최(1.26):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2010년 1차 빈곤포럼' 개최(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

◆[행사] 보건복지가족 미래비전 전략포럼 개최(1.30): 한국개발연구원 02-958-4114

◆[행사] 'POST 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세미나 개최(1.26): 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2010년 1차 빈곤포럼' 개최(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104 ◆[행사] 보건복지가족 미래비전 전략포럼 개최(1.30): 한국개발연구원 02-958-4114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아트플랫폼, 새로운 문화발신지를 꿈꾸며

인천시 문화예술과 김미옥 전문위원

인천아트플랫폼, 새로운 문화발신지를 꿈꾸며

인천시 문화예술과 김 미 옥 전문위원



인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라는 기존의 틀을 약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문화시설을 개관하였다. 이는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시설로서 장르로는 미술·사진 등 시각예술 중심, 성격으로는 레지던스(입주) 중심의 문화시설이다. 하지만 실은 문화와 공연예술 장르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창작스튜디오 뿐 아니라 전시실·공연장·교육실·자료관·커피숍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소위 '복합문화예술시설'이다.



최근 이 아트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술인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해외 작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행정가, 나아가 도시계획 전문가들까지도 인천시 중구의 쇠락한 창고지대에 위치한 이 시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시인 이세기는 경향신문 미추홀칼럼(2009. 10. 30. 107면)에서 '1890년대에 건축돼 물류창고로 쓰였던 근대 문화건축물이 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계몽파 개항(1883년) 이래 역사가 깊은 도심에서 방치하다시피 한 옛 물류창고를 예술촌으로 부활시킨 그 기획이 멋스럽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시가 그동안 건립해 왔던 다른 일반적인 문화시설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부지를 매입하여 그 새로운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건물에 문화와 예술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혔다는 점에서 그렇다. 얼핏 생각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만드는 일은 깔끔한 부지 위에 세련된 건물을 짓는 일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시설' 혹은 '건물' 자체로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의미를 얼마나 담아내느냐, 그 속에서 어떠한 예술적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냐 등의 다양한 도시사회학적·예술적·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조성은 인천시의 문화정책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개항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천초지였다. 산업화와 공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에는 낡고 오래된, 이른바 '근대산업유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개발의 논리 아래에서 본다면 이 건물들은 '유산'이라기보다는 '폐물'에 가깝다. 하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인천의 개항과 근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중하지만 낡고 초라한 유산에 새로운 문화적 기능을 부여한 것은 문화와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희망이 아트플랫폼을 기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인천아트플랫폼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드물기 때문에 도시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자극한 구조를 문화적으로 재생시키고, 나아가 예술활동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창작공간, 전시공간, 교육공간, 커뮤니티공간, 다목적공간 등 다양한 성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시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공간의 태생적 성격 자체가 그러하였듯이 예술가와 시민이라는 경계, 창작과 향유라는 경계, 무대와 객석이라는 경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는 경계,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라는 경계... 이 모든 경계에서 탈피하여 좀더 열린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이분법과 경계의 구도 속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현대예술의 흐름을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항상 모이는 곳, 모여서 즐거운 활동을 기획하고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곳,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도시를 좀더 활기차고 아름답고 명량한 곳으로 만드는 곳. 새로운 문화발신지로서의 아트플랫폼의 미래 모습이라 믿고 싶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라는 기존의 틀을 약간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문화시설을 개관하였다. 이는 중구 해안동에 위치한 시설로서 장르로는 미술, 사진 등 시각예술 중심, 성격으로는 레지던스(입주) 중심의 문화시설이다. 하지만 실은 문학과 공연예술 장르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창작스튜디오 뿐 아니라 전시실, 공연장, 교육실, 자료관, 커피숍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소위 ‘복합문화예술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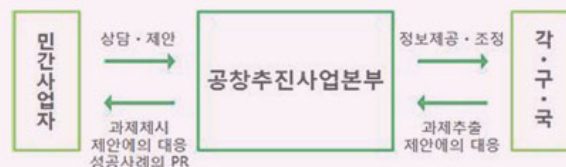
요코하마시의 새로운 시도: 민간협력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共創』 제도

도시계획연구실 조상운 연구위원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본 최초로 공공분야에서 민간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공창제도를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창"이라는 말은 "새로운 공부를 함께,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그동안 행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과제에 있어 민간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시는 제4부시장 직속의 "공창추진사업본부"를 2008년 4월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창추진사업본부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국구의 관련부서와의 중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본부안에 공창프론트라는 창구를 두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토후 관련 부서에 사업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9년 7월 말 현재, 약 95개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이 중 10개의 사업이 실현되었다고 한다.

공창제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연계 협정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2008년 12월 세븐일레븐으로부터 제안되어 2009년 2월 실현화 된 사업으로, 개항 1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요코하마에서 처음으로 발상되었다고 말해지는『牛鍋』을 도시락으로 상품화시켜 요코하마 시내 269개의 전 점포에서 판매하고, 개항150주년 기념포스터 및 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 입장권의 판매 등을 높은 네트워크와 판매력을 가진 세븐일레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겉으로는 단순히 보이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개항 150주년 기념사업이라는 시의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있을 것이다. 반대로 민간의입장에서는 요코하마라는

브랜드를 이용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소매점이라는 기업이미지를 강화하여 이미지 쇄신 뿐만 아니라 개항 150주년이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로 인한 수익창출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요코하마의 공창제도 사례는 행정과 민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하여 행정이 주로 담당하던 시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행정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본에서 최초로 공공분야에서 민간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공창제도를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창"이라는 말은 "새로운 공부를 함께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그동안 행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과제에 있어 민간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 '문화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도시경영연구실 신성희 책임연구원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천에 집중 분포하는 근대시기 문화자원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규제 수단만으로는 자원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어려운데, 주로 건물의 형태로 존립하는 문화자원의 현실적 보존을 위해서는 '보호'를 넘어선 '쓰임'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함.

기존의 정책은 문화재 지정, 추천, 보호 등의 자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방식이었으나, 근대시기 문화자원들이 집중 분포하는 장소 단위로서 묶음 보존과 공간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향후 문화명소로 육성하여 운영 가능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문화명소의 육성 및 운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문화지구'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연구하였음.

문화지구의 취지 및 도입 효과

물리적 보존과 규제를 통해서는 그 문화의 실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생성시켜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점에서 문화지구 제도가 법제화 되었음. 문화자원이 풍부한 장소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의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들은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 받게 되고 건축기준도 완화되며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게 됨.

<문화지구 내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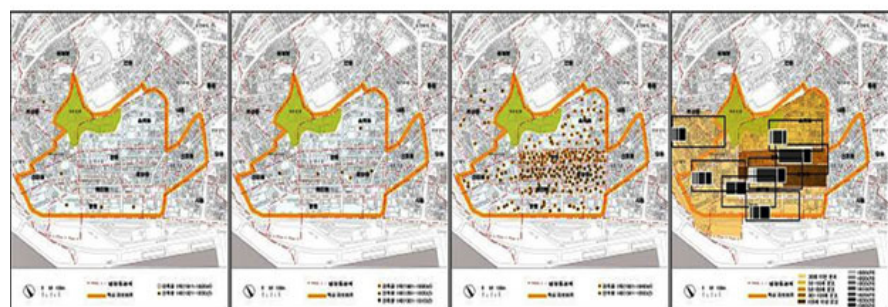
지원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지원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안 -권장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한 건물 임차 운영 등
육성	-문화지구 육성 기금의 조성 등

문화지구 제도의 지원, 육성책 속에서 문화·역사적 특성이나 자원을 보존·집적시키며 문화지구 자체가 '명소화' 됨으로서 도시가 상징성을 획득하고 도시의 질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파급효과가 큼.

중구 개항장 일대 문화지구 운영에 관한 제언

○근대 건축자원의 건립시기별 분포와 특성

건립된 시기별로 파악을 해보면 주로 50~70년 된 건축물들이 가장 많고 주로 관동과 중앙동에 분포함.



<70~90년된 건축물>

<90~120년된 건축물>

<50~70년된 건축물>

<건립연도별 근대건축물의 분포(중함)>

- 자원 밀집지역의 관리·규제 실태

문화지구 지정에 위한 기본계획수립에서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지원, 육성 지침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또한 최소한 개별적인 건축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고증을 통한 자료화가 뒷받침되어야 건축자원의 보전과 활용이 병행될 수 있음.

○제도 도입시점의 중요성 고려

연구지역이 그간 추진해왔던 관광특구조성 사업들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역이 관광지로서 성공을 먼저 경험하면 문화지구 제도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들은 상업화에 밀려 소실되기 쉬움. 특히 인천의 근대시기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저렴한 건축물들은 편의점, 오락실, 노래방, 저급 주점 등 이질, 위해업소들에게 최적의 '점포공간'으로 변모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자원의 다양화 및 여건 성숙

- 인천 토착적 근대유적의 발굴

추후 연구지역의 문화지구 조성을 고려할 때, 국제도시로서의 "Chemulpo" 뿐만 아니라 인천 도후부 다소면의 제물포에서 발전해온 "조선인촌"의 변화와 향토성에 대하여 문화자원으로서의 정책적 가치투입이 필요함.

- 차이나타운의 문화요소별 접근 필요

차이나타운이 지닌 '사람(중국예술인)', '언어(중국어)', '관습(종교)'와 같은 문화요소별 접근에 더하여 청국조계지로서의 '공간요소(장소성)'를 보존,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문화자원의 자생을 위한 경제적 지지에 초점

연구지역의 부동산 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와 제한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고 주변지역 여건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되, 문화요소에 대하여서는 선별적으로 퇴출압력을 줄여주는 경제적 지지 효과를 주는 데에 문화지구 제도 운영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권장용도의 고려, 유형별 '모델건축물' 조성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권장업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보존을 기반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권장용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 특히 문화기능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입주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인센티브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또한 건축양식별, 국가별, 위치별 유형을 분류하여 각 1채씩 보수 후, 일종의 유형별 <모델건축물>을 건립, 전략 위치를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임.

인천에 집중 분포하는 근대시기 문화자원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규제 수단만으로는 자원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기 어려운데, 주로 건물의 형태로 존립하는 문화자원의 현실적 보존을 위해서는 '보호'를 넘어서 '쓰임'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해발 69m의 야산인 응봉산 일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다. 1888년에 조성되었으므로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9년 앞서 만들어졌다. 공원 이름의 변천을 보면 처음 각국공원에서 일제시대 서공원, 그 후 만국공원으로 부르던 것이 1957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여 맥아더장군 동상 건립과 함께 10월에 자유공원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국공원 이후 법제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원이 결정된 것은 일제시대인 194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서이다. 당시 지정된 인천관내 공원은 먼저 도시자연공원으로 월미공원, 문학공원, 원적산공원, 계양공원 4개소가 있으며, 근린공원은 자유공원, 수봉공원, 석바위공원, 용현공원 등 13개소가 있다.

그후 60~70년대는 지정 숫자는 많지 않다가 80년대 이후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은 70년대 이전에 7개소가 조성되었고 근린공원은 80년대 이후에 26개소가 본격 조성되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공원조성에서 생활권 주변 공원 조성으로 큰방향의 전환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1985년 이후부터의 공원 결정은 도시의 개발과 확대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남동구와 남동공단 개발, 연수구 택지개발지역에 공원 결정이 집중되다가 최근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 공원 결정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시공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504개소이었으나 2008년에는 710개로 6년 사이에 1.4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공원수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공원 조성율이 21.6%에서 30.5% 크게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근린공원은 134개에서 218개로 1.6배 증가하였으며 면적으로는 1.4배 증가하였다.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포함)내 사유지 비율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1991년에는 62.7%, 2008년에는 58.7%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미시설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이들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공원조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분야 예산에 대해 분석하였다. 민선 4기에 해당하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인천 전체 예산은 평균 3조 5천억원 가량이 되며 이중 3.25%에 해당하는 1천1백억 가량이 공원녹지분야에 투자되었다. 이는 1990~1992년 사이에 54억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이 21배 상승한 금액이다. 물론 이 시기 인천시 전체의 예산은 7.2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1990~2009년 사이의 공원녹지분야 예산 변화

(단위: 천원)

	예산 총액 평균	공원녹지 예산 평균	비율(%)
민선4기 (2007~2009)	3,502,538,239	113,890,397	3.25
민선3기 (2003~2006)	2,213,147,728	64,509,821	2.91
민선2기 (1999~2002)	1,551,148,480	47,811,742	3.08
민선1기 (1996~1998)	1,047,852,988	37,745,038	3.60
관선 (1993~1995)	703,082,111	18,426,272	2.62
관선 (1990~1992)	483,275,687	5,368,030	1.11

해발 69m의 야산인 응봉산 일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다. 1888년에 조성되었으므로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9년 앞서 만들어졌다. 공원 이름의 변천을 보면 처음 각국공원에서 일제시대 서공원, 그 후 만국공원으로 부르던 것이 1957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여 맥아더장군 동상 건립과 함께 10월에 자유공원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